



중국

360검색, 사진저작권 인증보호·유통 플랫폼 '투커' 선보여

북경사무소

■ 현황

- 중국 최대 인터넷 보안업체 치후(奇虎) 360* 산하 검색엔진 360검색(360搜索)이 블록체인 기반 오리지널 사진 출처 인증 플랫폼 '투커(图刻, <http://tuke.so.com>)'를 정식으로 출시함

* 치후 360은 중국 최대 인터넷 보안업체로서 중국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과 핀테크, IoT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약 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오페라 브라우저를 인수한 이후 검색시장에서 중국의 대표 검색포털인 바이두(百度)와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성비가 뛰어난 스마트폰과 로봇청소기, 웹캠 등의 IoT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중국 내 점유율을 높이며, 중국의 주요 ICT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현재 중국 내에서 오리지널 사진저작물의 권리침해는 매우 빈번한 상황임. 사진저작물 권리침해의 경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침해자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 360검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커' 플랫폼을 선보임. 360검색은 '투커'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인증,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사진배급을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이라는 3가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360검색이 서비스하는 블록체인은 Lattice(격자암호화)기술을 채택하여, 거래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모형을 통하여 블록의 거래와 통신을 조절함으로써, 체인상의 거래처리 효율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함
- 한편, 주목되는 점은 최대 경쟁사인 '바이두'가 지난 7월 18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오리지널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투텡(图腾)'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공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플랫폼의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는 점인데, 저작물 유통과 관련한 두 검색포털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평가

- 최근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증과 보호 및 유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선보이는 사례가 최근 부쩍 많아지고 있음. 최근 텐센트도 자사 창작자 플랫폼인 치어하오의 원스탑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권리보호와 거래에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시범운영 결과를 밝힌바 있음.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저작물 유통방식의 발전은 향후 중국의 저작권 보호 생태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바이두바이자호(百度百家号)
 - <https://baijiahao.baidu.com/s?id=1607488079014505033&wfr=spider&for=pc>
- 봉황망(凤凰网)
 - http://tech.ifeng.com/a/20180730/45091424_0.shtml